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9일 목요일 음 7월 29일 (6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 요란하게 내리겠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다. 아침 기온은 22~23℃, 낮 최고 기온은 26~27℃로 전망된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30%
70%	성산	30%
70%	고산	30%
7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3/27℃
모레	구름 많음	22/27℃

생활·안전 기상정보

해돋이 06:05	달뜨기 04:14
해진 19:04	달짐 18:28
물때 만조 09:27	간조 04:12
	22:23 16:01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보통

월드뉴스

야생 아프리카코끼리, 동물원 수출 금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반발

앞으로 야생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아프리카코끼리를 동물원 등에 팔아 넘기는 거래가 금지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참가국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표결을 진행해 이 같은 규제를 승인했다. 투표 결과, 찬성은 87표였으며 반대는 29표, 기권은 25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야생에서 불법으로 아프리카코끼리를 동물원 같은 포획 시설에 보내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경우에 한해 CITES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CITES 참가국은 이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의 국가 간 거래는 허용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총회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였다. 유럽연합(EU)



야생 코끼리 자료사진.

이 회의 초반만 해도 규제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코끼리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규제안에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 주디 덴치 같은 유명한 수심 명이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하는 편지를 보낸 데다 규제안이 이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거래는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EU는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은 “유럽인은 그들의 동물을 소비했지만, 그들의 동물을 보존해온 우리를 규제 하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김완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주에 다시 강화도로 들어왔다. 매년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소속 전문가들이 특정 지역에 대해 10년 주기로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막 갯벌을 포함하여 마니산, 석모도, 교동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

강화도는 제주도와 인연이 많은 곳이다. 섬이라는 특수 환경에다 국경지대에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외세의 공격으로 편안할 날이 없던 곳이다. 고려 말에는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대몽항쟁을 펼치다가 진도를 거쳐 제주

교동도에서 전하는 제비 소식

도까지 내려오는데, 당시 호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외포리 망양동대에는 자매결연으로 설치한 돌하르방과 진돗개 상징물이 곳곳에 서 있다.

또한 유배의 섬으로 조선 국왕을 비롯하여 여러 왕족들이 형벌을 치렀던 곳이다. 특히 광해군은 교동도를 거쳐 제주도에 재차 유배되어,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임금이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역사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광해가 남긴 서민정책과 평화외교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때마침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의보감’ 전시와 ‘광해, 제주에 유배 오다’ 특별전이 좋은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이번 학술조사 기간 중에 특별히 교동도에서 오래 머물렀다. 강화도 최북단 섬으로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배를 이용해서 섬으로 들어갔었는데,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교동도 대

릉시장에 가면 제비빵처럼 옛날 음식들과 볼거리가 많다. 곳곳에 제비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왜 이렇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바로 제비의 습성을 상징한 한 것이다. 어르신 중심의 지역민과 고령인 젊은 세대 간에 원활한 소통과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교동제비집’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온 실랑민에게 간절한 소망이 바로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고향 소식이라도 빠르게 받고 싶은 심정을 잘 헤아렸다. 사실 제비는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철새로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로 찾아와 보금자리를 튼다. 바로 그 곳이 고향인 셈이다. 동지를 떠나 멀리 남쪽에서 겨울을 보냈다가 여름이면 어김없이 고향으로 찾아와 또 다시 자식을 낳으니, 제비들의 지지배배 소리가 부러울 따름이다.

과거에 그렇게 흔한 제비들이 희귀해져가고 있다. 식량증산과 같은 무한 경쟁에서 약한 존재가 힘센 천적에 의해 밀려나기 때문이다. 눈 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보기 쉽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강화도이다. 그나마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곤충들이 살아가기에 청정지역이어서 제비들이 많은 편이지만, 어느 순간에 자연평화마저 무너질까 봐 두렵다.

요즘 제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도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교동도의 제비들은 이미 동지를 떠난 상태이다. 강화도를 비롯하여 북녘 땅에서 번식을 마친 제비들이 제주도에 잠시 머물면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9월 중순에 멀리 월동지로 이동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타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고향에서 늘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가까운 일문에 계신 제주 사람들은 오죽할까. 고향이 다른 제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거늘.

열린마당

제주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철웅
우당도서관장

제주해마다 국내·외 관광객 1600만 명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서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에서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한라에서 시작하는 독서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도전하게 됐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226개소 기초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매년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대전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대한민국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제주독서문화대

3박 4일 동안 선물을 안겨준 소록도



고제희
제주중앙고등학교 3학년

작은 사슴 모양을 닮았다는 그 이름도 예쁜 소록도. 소록도는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부터 몇 백 미터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다. 하지만 예쁜 이름의 뜻보다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아름다운 소록도에서 제주 섬집사자의 도움으로 3박 4일간의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한센병은 과거에는 감염병으로 분류됐으나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 전염될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 자발적으로 신청한 봉사인만큼 그곳에서 할 일은 자신이 직접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 등에 유념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소록도는 1916년 일제강점기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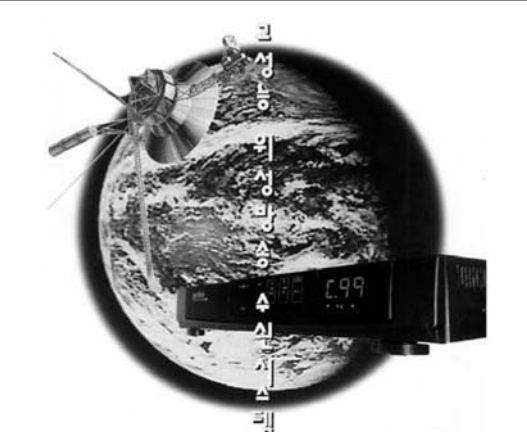
에 일제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격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금이었다. 유전과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가족조차도 멀리 떨어져 한 달에 한 번 면담지에서 눈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서린 수탄장이라는 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곳에서 소록도 주민 몇 분을 만나게 됐다.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그 중의 대다수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지나가며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마을의 잡초를 정리하거나 해변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3~4시간 동안 서 있으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우리의 활동으로 소록도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편해지고, 자연도 깨끗해진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환우분들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 또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타인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방법도 알게 됐다. 소록도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한라전설(주)는 위성통신을 통해 제주도를 연결합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도정 소식

19.8월 공동본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19. 8. 16. ~ 8. 31.

2019년도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9. 8. 27. ~ 9. 2. (공휴일 제외)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문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760-224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노동자 희망 찾기 한마당 개최

▶ 일시: 2019. 09. 07. (토) 13:00
▶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 주요 행사내용
○ 첫째 마당 ≡ 개회식 및 주요 내·외빈, 노동자,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마당
○ 둘째 마당 ≡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동아리 공연
○ 셋째 마당 ≡ 노동자 권리찾기의 첫걸음 : 2019 노동상식 골든벨
○ 시상 및 폐회 ≡ 우수노동자 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 폐회 및 기념촬영
□부대행사
○ 무료 상담코너 ≡ 노동법률, 취업상담, 미술심리검사 및 간단한 의료진단 서비스
○ 체험 및 전시 ≡ 사진 공모전 수상작전시 및 화분만들기 떡만들기, 오카리나 만들기 등 무료체험
□행사참여 관련 문의: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기획운영총괄팀 (064)753-5667

서귀포시정 소식

2019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알림
○ 신청기간 : 2019. 8. 26(월) ~ 9. 4(수)
○ 신청자격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로서 서귀포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 지원분야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의 증진 관련 사업 등
○ 지원기준 및 지원액 : 1개 단체 1개 사업 / 사업별 2백~4백만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포함)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760-2442)

2019 서귀포시민의 책 독후감쓰기 대회 알림

○ 응모기간 : 2019. 8. 1(목) ~ 9. 10(화)
○ 응모자격 : 서귀포시민('19. 7.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정도서 : 2019 서귀포시민의 책 30권 중 임의 선정
※ 단, 응모대상자와 지정도서분야가 동일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 분야, 청소년이 일반분야 도서 선택 가능
○ 응모부품 : 일반(대학생포함), 청소년(중·고등), 어린이(초등학생)
○ 응모요령 : 신청서 및 원고 제출 / 서귀포시 홈페이지 참고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bluejms@korea.kr), 방문접수
○ 입상자 발표 : 2019. 10월 (예정)
※ 시 홈페이지, 통합도서관홈페이지, 수상자 개인별 통보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대문화재단 ☎ 760-3675)

9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19. 8. 26(월) ~ 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 : 6세 이상 자녀 및 부모 15가족 30명
○ 운영일시 : 2019. 9. 11(수) 19:00
○ 운영장소 : 센터 교육실 (서호남로 19-42)
○ 운영내용 : 바스본&버디클렌저 만들기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신청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760-6488)